



68년만의 귀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내민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공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4위의 6.25 참전 국군 전사자에 참전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고국으로 돌아온 64위의 용사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해 미군에서 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이전 호남 배려해야”

1차 이전 이후 충청권 74·영남권 69개 ... 호남권 28개 뿐
권역별 기계적 배분 아닌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기회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의 실질적 해소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가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전국 사·도에 기계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낙후지역에 집중 이전해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난 2004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충청권과 영남권에 공공기관이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소외됐던 점도 이번 추가 이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1차로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19개 ▲부산 13개 ▲강원 12개 ▲경북 12개 ▲전북 12개 ▲경남 11개 ▲충북 11개 ▲대구 11개 ▲제주 8개 등이었다. 광주와 전남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모두 74개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대전에는 정부 대전정사를 비롯해 35개 기관이, 세종에는 정부종합청사

를 비롯한 20개 기관이 있다. 충북도 보건 산업 분야 등 12개 기관이 이전되어 있다. 영남권에도 69개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부산은 해양분야 기관 등 21개 기관이, 대구와 경북은 한국 수력원자력 등 26개 기관이, 경남과 울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기관이 모여 있다. 사실상 충청권과 영남권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충분히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나주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6개 공공기관만이 이전해왔다. 전북으로 이전된 공공기관 12개를 합쳐도 모두 28개로 영남권과 충청권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 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과정에서는 사·도별 공공기관 이전을 충분히 안배해 줘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15.7%로, 전국 광역 평균인 34.2%에 크게 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는 이 같은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호남은 소외된데다, 전남은 70년 이후 인구 최대 감소지역으로 좁히는 만큼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러한 점들이 특별히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낙후 지역 집중 이전을 통한 지역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양식장 태풍·고수온 피해 1333억 접수

피해 인정 규모는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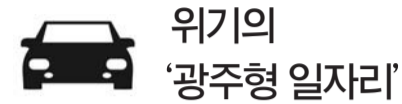
올 여름 태풍과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전남 양식장 피해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얼마나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여름 전남지역 양식장에서는 태풍으로 516억원, 고수온으로 817억원 등 모두 1333억원 규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태풍 피해액 516억원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33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86억원 중 정밀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정된 금액은 51억 8000만원에 그쳤다. 고수온 피해 신고액은 이보다 많다. 신안 177억여가 506억원, 완도 249억여가 190억원, 고흥 88억여가 65억원, 강진 10억여가 38

억 5000만원, 장흥 10억여가 14억원 등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은 피해 신고한 544억여가 중 40.8%인 222곳에 그쳤다. 특히 고수온 피해가 집중된 신안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져 피해여가 177억 중 15.3%인 27곳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보험에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통상 피해액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여가는 어업 재해 대책법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되지만 개인당 최대 5000만원이 한도다. 보험 가입뿐 아니라 고수온과의 연관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와 규모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손해 사정, 원인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재해로 인정될 피해와 보상 규모는 유동적”이라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초임’ 2100만원·3500만원 勞·市, 같은 협상 다른 목소리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

<2> 적정 임금 최대 변수
없는 일자리 만드는 사업
연봉 줄이는 대신 복지 혜택
논란 빨리 끝내고 협력해야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노동계 등이 근로자의 초임 연봉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사민정의 한 축인 지역노동계가 ‘초임 2100만 원은 말도 안 된다’며 현대차 공장 설립 관련 모든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광주시는 ‘초임 2100만원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초임 연봉 수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현대차 공장 설립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연봉을 줄이는 대신 복지 혜택을 주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연봉의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조속히 연봉 논란을 끝낼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년 동안 국내에서의 설비 투자를 피했던 현대차가 광주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은 노사가 상생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자체가 고연봉 대신 주거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한 몫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투자 초기에 고액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으로서 매력적인 투자 요소였고, 광주시로서는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묘안이 됐다.

하지만 주당 근무 44시간에 초임 연봉 2100만~3500만원 수준을 놓고 지역 노동계와 광주시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협상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지역 노동계는 초임 연봉 2100만원은 ‘나쁜 일자리’라며 노사민정 논의 중단을 선언했고, 광주시는 “연봉 2100만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초임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가 현대차 공장의 초임 연봉을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저가의 연봉을 적용하면 근로자를 제대 구할 수 없고, 원청의 저가 연봉이 지역의 하청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준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원청 근로자의 초임 연봉이 낮으면 2~3차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더욱 낮은 연봉을 받게 된다”고 “저연봉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실제 (재)광주그린카친환경이 지난 6~7월 광주지역 자동차부품기업 28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었고 자동차 1차 하청업체와 2차 하청업체간의 연봉 격차도 컸다. 이들 하청업체의 평균 초임 3000만원 이상은 1차 하청 14곳 중 3곳이었지만 2차 하청은 1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현대차 공장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해선 근로자의 연봉 문제 해결과 함께 원청업체 간 연봉 불균형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지역 노동계가 현대차 초임 연봉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현대차 공장 설립으로 광주지역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원청업체 간 연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난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되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노사 상생을 통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은 필수조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도서관, 문화를 품다
- 코펜하겐 중앙도서관 ▶18면
5위 싸움 칼자루 친 KIA
- ‘기적의 가을’ 완성한다 ▶20면

color! Autumn
컬러어뎌?
#으깬장미
THIS AUTUMN
THE NEW MLBB